

박찬국 교수(서울대)
당신은 소유할 것인가,
존재할 것인가
7면

금주의 법구-〈법구경〉
우리의 몸은 마른 삶과 같고
성난 마음은 불교와 같다.
남을 태우기 전 내 몸을 태운다.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0년 단기 4349년(음력 11월 26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 1078호 2016년 1월 6일 수요일

‘깨달음=이해’ 논쟁 다시 불붙나

수불 스님, 현웅 스님 주장 반박한 소책자 발간

깨달음은 의심을 뛰어넘고 의혹을 제거해 확실대오하는 경지인가. 아니면 철저한 사유와 이해를 통해 증득할 수 있을까.

지난해 조계종 교육원장 현웅 스님으로부터 시작된 ‘깨달음은 이해를 통해 이뤄진다’ 논쟁이 2016년 새해 벽두부터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 금정총림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사직은 현웅 스님의 주장에 대한 반박을 담은 소책자 <조계종지의 현대적 구현>을 발간했다. 이 책자는 종정 진제 스님을 비롯해 원로의원, 중앙종무기관장, 총림, 교구본사, 선원, 율원, 승가대학 등에 2000부가 배포됐다.

수불 스님은 소책자에서 현웅 스님이 저술한 <깨달음과 역사, 그 이후>와 <깨달음과 역사, 그 이후> 반론에 대한 답변)에 대해 12개 항목에 걸쳐 비판하고 있다.

가장 먼저 현웅 스님의 ‘조계종 명칭 변경’ 주장에 대해서는 종단의 종지인 ‘전법도생 직지인심’을 들어 “한국불교의 전통성이자 고준함이며, 시대를 뛰어넘는 바른 목표”라고 강조했다. 또한 “선조 스님들이 세워 놓은 깊은 뜻을 헤아려 후배들이 실현하려고 노력해야지, 시대의 흐름을 따라야 한다는 구실 아래 쉽

리 이름을 바꾸려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수불 스님은 ‘깨달음은 이해’라는 현웅 스님의 일련 주장이 범주의 오류를 범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스님은 “불이법(不二法) 차원의 깨달음’은 현웅 스님이 말하는 ‘이법(二法) 차원의 이해’와 범주가 다를 수밖에 없다”면서 “‘깨달음은 이해하는 것’이라는 말은 ‘상을 여린 것(깨달음)은 상을 가진 것(이해)’이라는 무의미하고 모순된 주장이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상대적인 ‘이법’의 논리로 ‘불이법’을 재단하려는 시도는 ‘잡념 꼬끼리 만지기’와 같다”며 “해안 이하의 안목으로는 ‘마음’이 모호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근본에 의심을 품고 실질을 통해 안목을 열어가지 ‘연기관과 공상’을 이해하는데 만족한다면 불조의 해명을 바로 이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깨달음은 진화한다’는 현웅 스님의 주장에 대해서도 범주의 오류를 지적했다. 수불 스님에 따르면 ‘깨달음’은 ‘불생불멸의 중도불이법’이고 ‘시대적 진화’는 ‘생멸이 이어지는 생멸이법’이어서 상호 범주가 다르다는 게 주요한 이유이다.

현웅 스님이 주장한 화두의 의미에 대



깨달음 ‘不二法’, 이해 ‘二法’
함께 논하는 것은 ‘범주의 오류’
조계종 종명을 버릴 게 아니라
종지에 더 충실해야 발전 있어
간화선 부흥, 한국불교의 미래

해서도 수불 스님은 오목조목 비판했다. 현웅 스님은 자신의 글에서 화두를 ‘이야기와 대화’, ‘사유하고 음미하고 성찰하는 것’이라고 설명해 왔다.

이에 대해 수불 스님은 “화두를 ‘사유하고 음미하고 성찰하면’ 그 화두는 즉시 사구(死句)가 된다”면서 “화두를 자기 문제로 ‘의심화’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활구(活句)가 되지 못하고 단순하게 지나가 버리는 공허한 일화에 지나지 않

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화선은 조사선에서 형성된 범거량이나 선문답이 공안으로 전제되어야 하며, 화두는 수행자에게 ‘들리고 하지 않아도 들리고, 내려놓으려 해도 내려놓을 수 없는’ 활구 의식이 전제되어야 한다”면서 “간화선은 학인으로 하여금 화두에 집중케 하고 본래면목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장지된 최상승 수행법”이라고 주장했다.

최종적으로 수불 스님은 ‘한국불교 현대화’에 대한 총론적 입장에 대해서는 긍정적 입장을 밝혔지만, 각론적으로는 부정적인 입장임을 재차 강조했다.

스님은 “한국불교의 역사와 전통을 시대적으로 담아내기 위해서 ‘조계종’ 종명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종지를 보다 충실히 하여 ‘돈교법문’을 대중화·생활화해야 한다”면서 “인류 최고의 정신문화유산인 간화선법을 활용하지 못하는 현재를 비판해야지 간화선법을 문제삼아서는 안된다. 뿌리를 튼튼하게 살려 아름다운 꽃과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 바른 이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계종의 근본은 ‘법안과 불안의 안목’이라며 “불법에 대한 안목을 여는 가장 효과적 수행법은 한국불교가 보존해온 간화선이다. 간화선의 부흥에 한국불교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시민사회단체가 구랍 30일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를 개최한 모습. 사진=윤호섭 기자

위안부 한·일 합의 졸속 처리 논란 확대

구랍 28일 한·일 정부가 도출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협상안’에 대해 나눈의집 등 종교·시민사회계 반발이 극심해지고 있다. 기시다 외무상이 대독한 아베 총리 사과는 진정성이 결여돼 있으며, 협상안에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법적 배상’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 반대 여론의 이유다.

〈관련 기사 3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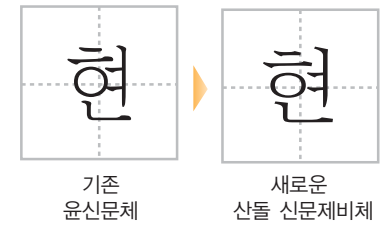
글=박아름 기자 pak504282@hyunbul.com

목각 만불전 건립
대 공덕을 발원하시는
사찰 연락 요망

011-389-5357

2016 현대불교 달라집니다

독자와의 소통을 위한 변화



신문 서체 변화

현대불교신문이 서체와 편집을 변화시켰습니다. 서체와 크기를 조정해 좀 더 편안하게 신문을 읽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편집에 변화를 줘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和靜

화쟁

왜 이 시대의 대안인가

〈Card News〉 서비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카드뉴스’가 신년부터 서비스 됩니다. 요약된 기사 정보와 이미지를 결합해 불교계의 소식과 정보를 독자들이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제공하려 합니다.

다양한 지면 연재로 불거리 확대

지안 스님의 〈대승기신론 강설〉

〈대승기신론〉은 대승불교의 요체가 담겨 있습니다. 조계종 고사위원장이자 직지사 한문불전대학원장인 지안 스님이 〈대승기신론〉의 정수를 지면을 통해 강의합니다.

도정 스님이 풀어쓴 〈대장부론〉

인도의 논사인 제마라보살이 저술한 〈대장부론〉. 시인 도정 스님이 현대적 언어로 해석한 〈대장부론〉에서 보시의 중요성을 만나보십시오.

노재학 문화재 전문 작가의 〈그 절집의 빛〉

전국 곳곳의 절집서 별처럼 빛나는 오래된 빛을 만납니다. 그 빛은 불보살, 장엄미술, 전통건축, 석조조형, 불교의식 및 조형, 소나무 같은 생명문화재일 수도 있습니다. 선재동자가 여러 선지식을 만나듯이 다양한 문화유산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윤양호 교수의 〈禪과 현대미술〉

“유럽의 현대예술가들이 추구하는 예술적 지향점은 불교와 禪의 정신에 있다.” 현대 미술가 윤양호 원광대 선조형예술학과 교수가 풀어내는 새로운 불교미술학 패러다임인 ‘선조형예술’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최선일 박사의 〈佛母傳〉

불자들이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성모는 누가 언제 만들었을까? 그 옛날 불모(佛母)들의 면모를 살펴 사찰에서 접할 수 있는 이들의 작품에 대한 이해를 높여 보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김준호 교수의 〈니까야서 길을 묻다〉

니까야에는 부처님 당시의 생생한 목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김준호 울산대 교수가 취입과 학업 경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30대 청년들에게 니까야를 통해 희망과 응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배중훈 작가의 〈명상카툰〉

불교 대표 일러스트레이터 배중훈 작가의 연재가 시작됩니다. ‘禪 카툰’의 새로운 장르를 연 배중훈 작가가 그리는 ‘명상카툰’은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승미 작가의 〈가족이 읽는 창작 불교동화〉

서울신문 신춘문예 소설부문의 오늘의 작가상을 석권한 우승미 작가가 가족들이 함께 읽을 수 있는 불교동화를 선사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부처님의 생생한 말씀을 담은 경전은 새해 최고의 선물!! 깨달음의 언어로 이루어진 책은 삶의 나침반, 인생의 보배

불교경전 시리즈

● 불교경전총서는 당신의 불심을 일깨웁니다.



- 쉽고 재미있게 풀어낸 ‘경전을 읽는 즐거움’은 곧 삶의 즐거움이 됩니다.
- 수타나파타를 읽는 즐거움 ■ 보경 지음, 값 15,000원
- 승인경을 읽는 즐거움 ■ 알린 지음, 값 15,000원
- 아미타경을 읽는 즐거움 ■ 동봉 지음, 값 23,000원
- 금강경을 읽는 즐거움 ■ 알람 지음, 값 15,000원
- 법상계를 읽는 즐거움 ■ 법상 지음, 근간

콘사이스 불교사전



- 불교 공부의 길잡이, 불교 공부를 하고 경전을 읽기 위해 꼭 필요한 책
- 한 권의 사전으로 불교의 거의 모든 지식을 섭렵할 수 있다.

불교에
입문한 분들이
좋아하는
가장 품위 있는
선물

■ 김승동 편저
값 45,000원

행복한 삶을 열어주는 민족사의 책 5

- **버리고 비우고 낮추기** - 무아·무심·하심의 행복론
■ 정승석 지음, 값 10,800원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얻어가는 길. 버리고 비우고 낮추다 보면 행복한 삶의 주인공이 된다.
- **마음의 비밀** - 아뢰아시의 발견
■ 오코야마 고이치 지음·김명우 옮김, 값 10,800원
마음에 대한 이해가 깊을수록 긍정적인 삶이 된다. 마음의 구조를 해명함으로써 마음을 변화시키는 방법과 행복의 길을 제시하는 책
- **붓다의 인생코칭** - 붓다에게 배우는 행복해지는 법
■ 무에나시 아카라 지음·유운한 옮김, 값 10,800원
직장에서 보람을 느낄 수 없다면 붓다의 교정을 받아라! 붓다가 알려주는 직장인을 위한 자기개발의 필독서
- **안에 있을까? 밖에 있을까?** - 월호 스님의 참선 이야기와 남의 수행일기
■ 월호 스님·배중훈, 값 16,500원
참선과 카툰의 만남으로 의미에 재미를 더하다! 참선 이야기와 바른 삶을 추구하는 ‘남’의 모습을 통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열어 준다.
- **빛나는 해피불** - 운명을 바꾸는 빛
■ 동희 스님, 값 16,200원
동희 스님의 생령력 넘치는 글과 만다라! 그 힘찬 에너지가 우리의 삶, 운명을 새롭게 빛나게 할 것이다.